

# 내년부터 카드 포인트 사용해도 없어진다

### 금감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개선 포인트 가맹점 등 고지의무도 강화

카드를 많이 이용하다보면 생기는 궁금증이 있다. 지금 내 카드의 포인트는 처음 카드 발급을 권유받을 때 들었던 대로 쌓이고 있는지와 어떻게 쓰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을지 여부다. 요즘 많은 금융거래의 틀을 금융당국이 손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가 관행으로 지나쳤던 약관 가운데 많은 부분이 터무니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서다. 카드사의 포인트 제도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손해 보기 쉽다.

### ●불합리한 카드사 포인트 관행 개선

6월29일 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회사의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놓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 포인트의 무제한 사용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물건을 살 때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도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카드 포인트의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관행부터 없애도록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포인트 비용 절감과 전액사용에 따른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비율을 제한해왔다. 반면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는 전액 사용을 허용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8개 카드전업사 가운데 롯데와 국민 우리카드를 제외한 5개 회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했다. 전체 포인트 결제 1억3000만 건 가운데 68.3% 비율인 8918만 건이나 제한했다. 금액으로 보자면 전체 포인트 결제 금액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나오는 소리 가운데 하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카드 포인트의 무제한

사용이지만 아쉽게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 ●포인트 혜택 제대로 알고 냉정히 따지자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카드사는 적립률 등 혜택만 강조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정작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에 따른 조치다.

카드사는 이제부터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장에 자세히 게재해야 한다.

물론 카드사들의 반발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포인트 적립과 사용처인 가맹점과의 이해관계가 얽려 있는 사안인데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손쉽게 해온 영업활동을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껏 열심히 카드 포인트를 모아왔는데 실제로 내가 당장 쓰고 싶을 때 사용할 가맹점이 많지도 않아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5개 카드회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률은 81만 곳이었지만, 사용처는 6만 곳에 불과했다. 포인트 적립하는 곳만큼이나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카드사의 포인트 한도 정책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보다 구매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다. 카드를 팔 때는 포인트 혜택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구입 후 실제 포인트를 쓰면 생각했던 것보다 혜택이 크지 않거나 예외 적용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내게 가장 맞는 카드 내게 실제로 필요한 혜택을 생각해 야지 이것저것 몇% 더 준다는 카드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내 호주머니 속의 돈과 카드 포인트를 지키는 방법이다. 김홍건 기자 marco@donga.com

# 휴면계좌 잔액 이동 '집에서 해결'

### ■알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 금감원 '어카운트인포' 12월 시행 본인명의 전 계좌 확인·해지 가능

알아두면 손해날 것이 없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또 생겼다.

여러 곳에 분산된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오랜 기간 거래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주거래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12월 도입된다. 쓰지 않는 통장에 든 소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던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금융서비스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100lifeportal.fss.or.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월 2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실시한다.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는 ▲모든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운영하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금융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이처럼 개인마다 넘쳐나는 비활성계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카운트인포다.

새로운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국내은행

에 본인명으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 비활동성으로 구분해 계좌 개설 은행과 지점, 최종 입출금 날짜, 잔액 등 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잔액 계좌이체는 잔액 이전만 가능하고 그 계좌는 해지된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12월부터, 50만원 이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서비스 대상은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계좌 등이다. 미성년자·외국인·공공명 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제외된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인증의 2중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없이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6월에 설립된 페이지다. 국내 89개의 금융사에 가입한 연금상품명이나 연금개시일, 적립금·평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1만명이 가입했으며 오픈 이후 75만명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검색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4월부터는 ID와 비밀번호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접속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된다. 신규가입 역시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홍건 기자



대림산업이 1일 개관한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7구역에 분양하는 아크로 리버하임 건보주택에 사흘 동안 무려 3만8000명의 청약예정자가 방문했다. 저금리시대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돈과 숨가쁘게 오르는 전월세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다. 사진제공 | 대림산업

# 문체부-전경련 관광발전 '맞손'

### 7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는다. 문체부와 전경련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문체부와 전경련 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

이다. 두 기관은 7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전경련 관광위원회에서 관광업계 회원사 및 관련 기업, 자문위원들과 함께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과 가을 여행주간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전경

련 회원을 대상으로 직원 휴가사용 및 여행 분위기 조성을 추진한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전경련 회원사들 사이에 보장된 혜택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국내여행을 갈 수 있는 사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제2금융권 대출 신용등급 회복 단속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성실하게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종전보다 빨리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성실 상황자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신용조회사(CB)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가 1~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현재보다 신용등급이 빠르게 올라간다. 통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등급이 내려가는데 원리금을 연체 없이 갚으면 신용등급이 다시 상승한다. 그동안 제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상승 속도가 더더 저속은행을 찾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7등급 성실 상황자가 은행대출을 받으면 2년 뒤에는 신용등급이 평균 5.5등급으로 오르지만, 제2금융권을 이

용하면 6등급으로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카드 연회비 결제 내용 문자 안내

7월 초부터 카드 연회비 결제 내용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현재 카드는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연회비 결제 안내를 사전에 알렸지만 청구서는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인 지율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카드사는 경제활동 인구의 94%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점을 감안해 결제예정 연회비를 별도 안내하는 SMS 부가서비스를 한다. 주요 고지내용은 결제예정 연회비 총금액, 결제일자 등이다. SMS 부가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은 7월부터 월별 대금청구서 수령 전에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sizer

특허받은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사타구니**를 긁고 계시지 않나요?

남성은 신체조건상 음낭과 음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음낭의 아래 사타구니 주변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다습하며 스킨마사지(방성남성분비물)등 곰팡이성 유해세균 등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

**시저!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

남성의 사타구니가 습하거나 가려우면 성관계시 여성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살 청결은 여성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 또한 좋은 팬티를 고르는 기준이라 하면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우며 끈끈함 없이 보송보송하고 산뜻해야 한다. 남성 기능성 팬티 '시저'는 사타구니, 고환, 음경을 3단 분리하여 땀이 덜 차고 보송하게 유지해 준다. 팔프, 등산, 조깅 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사무직 직장인 등 모든 남성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 시저골드 SIZERGOLD
- 시저레몬 SIZERLEMON
- 시저실버 SIZERSILVER
- 시저네이비 SIZERNNAVY
- 시저블루 SIZERBLUE
- 시저와인 SIZERWINE
- 시저레드 SIZERRED
- 시저지브라 SIZERZEBRA
- 시저웨이브 SIZERWAVE
- 시저웨이브스카이 SIZERWAVES

**시저를 입으면, 남자의 자존심이 살아난다.**

▶ **쇼핑몰: www.sizer.kr**  
▶ **문의전화: 1577-5579**

**한 손으로 편안하게 주머니형 디자인**  
팬티 앞면의 주머니 덮개는 소변을 볼 때 허리 밴드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을 위한 3단 분리 디자인**  
예로부터 남성의 고통을 차갑게 해야 정력이 좋다 하였습니디. 정자를 생산하려면 고환의 온도가 체온보다 2-3도 정도 낮아야 합니다. 남성 기능성 건강팬티 시저는 사타구니와 고환, 고환과 음경, 음경과 하복부가 확실하게 3단 분리 되는 디자인으로 땀이 우수하여 땀이 덜 차고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기능성 팬티입니다.

**항균, 항습, 항취 ATB-100**  
물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습기로 인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여 뛰어난 항균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ATB-100원단에는 은사까지 함유되어 높은 항균성을 지니며 여러번 세탁해도 항균력이 떨어지지 않는 기능성 원단입니다.

**특허받은 팬티 시저**  
본 발명은 남성의 음경과 음낭이 각각 격리됨으로써, 땀에 의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남성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발명특허 제 10-1212608호